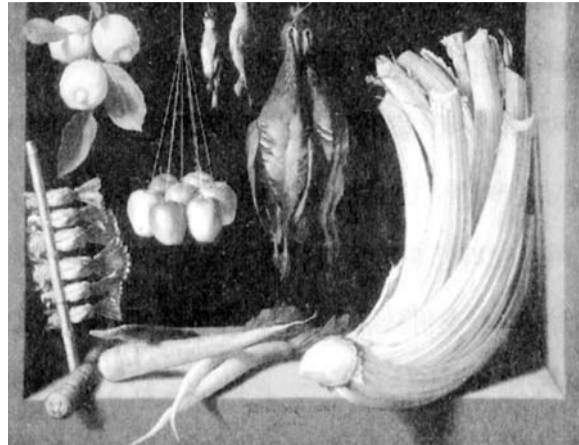


맛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돼 왔을까

음식철학

캐롤린 코스마이어 지음, 권오상 옮김

“맛보고,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이 복합적인 활동은 없을 것이다. 그것은 학문 분야로서 자리매김 되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역사학, 심리학, 생리학, 예술, 문학, 인류학, 철학으로부터 샘플을 고집어내는 작업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맛의 과학은 상당히 진전을 보였다. 3장을 읽는 과학자들은 맛 수용체에 대한 설명들 중에서 지금은 어떤 것들이 낡은 것이 되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한 때는 잠정적인 것으로 생각되었던 풍미의 범주들이 지금은 널리 수용되고 있다. 거기에는 우아미(감칠맛)와 같은 것이 있다.”



현대 예술의 관점에서 음식은 상징성으로 표현된다. 후안 산체스 코탄의 '카루돈을 그린 정물화' (왼쪽)와 안 피트의 정물화 '풍성한 사냥감'.

현대의 관점에서 음식은 상징성으로 표현된다. 후안 산체스 코탄의 '카루돈을 그린 정물화' (왼쪽)와 안 피트의 정물화 '풍성한 사냥감' 등의 책을 펴냈다. 추천사를 쓴 노봉수 서울여대 식품공학과 명예교수는 “우리 한국 음식에 관한 담론이 자리를 잡아야 할 시점이다”며 “나아가 음식철학에 관한 이야기도 함께 다뤄져야 할 때라 본다”며 ‘음식철학’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한다. 사실 최근의 식품분야는 인문학에 초점을 둔 연구와 다양한 서적이 발간되고 있다. 음식, 한식, 밥, 채소 등의 주제가 인문학과 연계돼 다루지는 추세다. 이번 책에서 저자는 ‘감각’, ‘과학’, ‘식육’ 등을 매개로 음식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맛’이라는 언어가 은유로 사용되지만 미학 분야 텍스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다. 흥미로운 점은 근대 유럽 철학에 나타난 맛 이론에 대한 부분이다. 로크는 맛이 모양, 색깔 등과 같이 단순 개념에 속한다고 보았다. 흄은 맛의 개별성과 상대성을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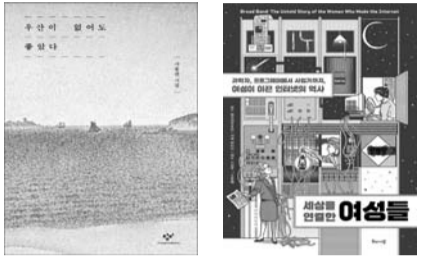
적한다. “일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맛의 표준이 있다고 본 것은 그 때문이다. 칸트는 미학에서 맛 판단의 보편성과 필연성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헤겔은 후각과 미각의 본성은 그 대상의 손실이나 변형을 요구한다고 전제했는데, 예술 작품의 영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인간의 자각 연구는 마음이 정보를 받아들이는 감각과 연관된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 그것인데 서양 철학은 다섯 가지 감각에 위계를 정했다. “시각의 서열이 첫 번째이고, 청각이 그 뒤를 바짝 따라붙는다. 지식의 발달사에서 시각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다. 음식의 상징성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고찰하는 부분도 관심을 끈다. 음식의 모습과 색깔은 건축과 공예에서 장식용 무늬로 사용돼 왔으며 현대미술에서는 정물화의 주제와 형식을 제공해왔다는 것이다. <헬스레터·3만5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새로 나온 책

▲유럽식 독서법=김술의 세 번째 단편 소설집이다. 제7회 젊은작가상 수상작인 표제작을 비롯해 모두 여덟 편이 실렸다. 각 편의 제목 앞에는 소설의 배경이 된 나라의 이름이 나온다. 영국,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알바니아 등 유럽 나라들이다. 저자는 인종 차별과 빈부 격차, 이주민, 난민과 불법 체류 문제 등 유럽의 화려한 이면에 있는 부조리를 다양한 서사로 드러낸다. <문학과학사·1만4000원>



▲사람이 힘겨운 당신을 위한 관계의 심리학=‘가족의 두 얼굴’과 ‘가족의 발견’ 등을 펴낸 최광현 교수의 신작이다. 가족심리치유 전문가인 저자의 ‘가족상담’ 강의를 바탕으로 엮였으며, 관계에 대한 저자의 통찰과 다양한 사례 제시로 가족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뒤엉킨 관계의 매듭을 풀 수 있는 지혜와 실마리를 제공한다. <21세기북스·1만6000원>



▲우산이 없어도 좋았다=국립암센터 원장이자 시인으로 활동 중인 서홍관 시인이 펴냈다. 시인은 존재들의 뒷모습은 고 통까지 어두운지는 특유의 다감한 시선을 이번 시집에 고스란히 풀어놓았다. 총 5부로 나누어 묶은 이번 시집은 인간의 존엄과 현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며, 사랑의 시선으로 존재를 향한 연

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한 시인의 깊은 성찰도 담았다. <창비·1만3000원> ▲세상을 연결한 여성들=여성이 이끈 인터넷의 역사를 다룬 책으로 아마존 ‘2018 베스트 논픽션’에 선정되기도 했다. 프로그래머, 과학자, 사업가 등 기술 발전의 중요한 물결마다 등장한 여성들을 조명해 비록 역사에 이름이 남기지 못했지만, 한 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총 3부로 구성된 책은 인터넷의 역사를 따라가며 각 발전 단계마다 여성들이 기여한 주요 내용들을 소개한다. <해나무·1만6800원>

어린이·청소년 책



▲손바닥 상어=어느날 빨강아리, 노랑아리, 파랑아리 등 아리 삼총사는 뱀뱀뱀 탐험선을 타고서 바다로 나간다. 그리고 저만치 바다거북을 따라 낚선 섬으로 가다가 그만 소용돌이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책에 나오는 26마리 바다생물들은 손바닥 모양으로 생겼다. 바다거북부터 아주 커다란 대왕고래까지 색다르고 기발한 모습에 공작 따라 그려보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리틀브레인·1만3000원>

▲햇별 토스트=바삭바삭 촉촉한 노랑의 맛! 따뜻한 햇살이 길게 비치면 심심해 하던 아이도 할아버지 개도 고양이 두 마리도 햇별을 찾아가 몸을 누인다. 따뜻한 온기가 술술 잠을 불러 오고, 냇물 미소 띤 얼굴로 잠이 든다.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고 따끈따끈한, 작은 숨을 내쉴 수 있는 평온한 시간이다. 이해진 작가는 햇별과 낮잠이라는 익숙한 코드에 낚선 상상인 토스트를 올려놓아 색다른 맛을 완성했다. <사계절·1만2500원>

▲커다란 당근의 비밀=오늘은 당근을 수확하는 날, 농부 할아버지와 두더지는 커다란 당근이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긴다. 이 커다란 당근은 누가 키운 걸까? 농부 할아버지가 씨를 뿌린 후 가늘고 어린 뿌리들이 내려오면 두더지는 빛으로 뿌리

“힘든 사람들에게 불빛 전하는 등대”...시인이 꿈꾸는 책방

안녕, 나의 작은 테이블

김이듬 지음

작은 동네서점에 가면 즐겁다. 아기가기하게 꾸며진 공간들도 좋고, 무엇보다 주인장들이 서점 서가에 가져다 놓은 책들을 살펴보는 재미가 크다. 동네 서점은 규모가 작다 보니 많은 책을 진열할 수 없어 주인장의 ‘취향’이 많이 반영된다. 그래서 나와 같은 ‘취향’의 서점을 발견하면 행복해진다.



작가가 운영하는 서점이라면 더욱 더 가보고 싶어진다. 늘상 궁금한 작가의 관심사를 알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작가가 운영하는 책방으로는 유희경 시인의 시집 전문 서점 ‘유희엔시킵’, 심어송라이터이자 작가인 가수 유조의 ‘책방무사’가 대표적이다.

시인 김이듬도 2017년 경기도 일산 호수공원 앞에 ‘책방이듬’을 열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온몸이 뜨겁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기분을 잃어버리고 살게 될까봐”, 동네 서점은 결국 망할 거라며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이 말리고 걱정만, 책방 오픈을 강행했다. 책방 입구에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쓴, “춤추는 별이 되기 위해서는 그대 스스로의 내면에 혼돈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글을 써 붙이고서, 김이듬 시인의 산문집 ‘안녕, 나의 작은 테이블’은 서점을 운영하며 겪은 에피소드들과 평범한 일상에서 보고 느낀 이야기들을 담담하게 풀어낸 책이다. 책은 ‘책방에서 나의 방을 생각하다’, ‘그녀의 입술은 파스하고 당신의 것은 차가워’,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화해하는 밤이’, ‘우리는 만나 다른 사람이 된다’ 등 모두 4부로 나눠 책방에 대한 이야기,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 시와 문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인은 자신의 서점이 ‘심리적인 기차역이나 객실이 되면 좋겠다’고 말한다. “책을 통해 먼 곳으로 떠났다가 조금 달린 마음으로 돌아오는 경험이 가능한 곳, 지지

고 힘든 사람들에게 작은 불빛을 전하는 등대같은 곳, 일상이라는 소소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곳”이 시인이 꿈꾸는 책방이다. 시인은 서점을 운영하며 ‘관계 맺음’에 대해 생각한다. 30년 넘게 세탁소를 운영하는 옆집 아주머니에게 직접 구운 따뜻한 식빵을 건네 받고, ‘잔뜩 걸린 옷들 사이에서 읽으시라’며 최승자의 시집 ‘빈 배처럼 텅 비어’를 빌려준다. 그날 그날 꽃을 팔아 번 돈으로 시집을 사서 행복하다는 아내와 그런 아내의 말에 귀 기울이며 소설책 한 권을 꺼내드는 젊은 부부의 모습도 보여준다. 지인들의 우려처럼 매달 월세 내는 날에는 이런저런 생각이 들고 운영하는 데 힘들 때도 있지만 책방은 시인에게 더 없이 소중한 공간이다. 김이듬 시인은 영역시집 ‘히스테리아’가 세계적인 권위의 전미번역상과 루시엔 스트릭번역상을 동시 수상해 화제가 됐다. 김춘수시문학상을 수상했으며 ‘마르지 않은 티셔츠를 입고’, ‘말할 수 없는 애인’ 등의 시집을 펴냈다. <열림원·1만3500원>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0505-362-90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